



“수고했다. 내 딸”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2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동아어고 교문 앞에서 시험을 마친 한 수험생이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출가분한 마음으로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어·수학 어려웠다

수능, 변별력 확보 위한 고난도 문제 포함 ...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

정부의 '쉬운 수능' 기초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웠다든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유형이나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제 등으로 중상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평가다. 예상치 못한 문제 등으로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다.

〈관련기사 6·7면〉
 광주지역 교사들과 수험생들은 전년도보다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수능 시험의 경우 사상 최초로 영역별 만점자 수가 1등급 커트라인(4%)를 넘어서는 등 변별력 확보에 실패,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험생

들도 정부가 쉬운 수능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데다, 두 차례의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된 상황에서 예상과 사뭇 다른 난이도를 접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는 얘기가.

국어 영역의 경우 A/B형 모두 다소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가지만 문과 수험생이 주로 보는 B형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됐지만 새로운 문제 유형과 고난도 문제가 섞여 있어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B형을 택한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당혹스러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EBS와의 연계 수준이 71.1%에 이르지만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이 매우 어려워 첫 교시부터 진땀을 뺐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은 A형의 경우 1등급 기준 점수가 지난해(97점)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B형은 지난해(1등급 91점)가 워낙 어렵게 출제됐던 만큼 지난해보다 높거나 비슷한 92~95점 수준으로 예측했다.

수학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게 일선 교사와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B형의 경우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4.3%에 달했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얘기가.

영어도 지난 두 차례의 모·평보다 어려운데다, 고난도 문제(3점) 등으로 변별력이 확보돼 면접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지난해(98점)보다 낮은 점수(92~95점)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광재 승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출제본부가 '쉬운 수능'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수능이 워낙 쉽게 출제됐던 탓에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세월호 선장 '승객 살인죄' 유죄 ▶6면
 신 팔도유람 - 수원 화성 축제 ▶18면

달빛동맹 광주·대구 '예산동맹'

윤장현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 국회에서 만나
 '상생 공동 발표문' 채택...국비 확보 공동 대응키로

광주와 대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지역갈등의 대표적 도시로 불렸던 광주와 대구가 상생 발전을 위한 '달빛동맹'을 넘어 이전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예산 동맹'까지 만들어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1층에서 만나 '광주-대구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 시장은 발표문에서 "광주와 대구시는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조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산을 비롯해 양 도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여당과 여당, 중앙 정부는 양 광역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예산'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양 시도는 국가발전의 신 성장축인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 등 양당의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상대 지역의 주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윤 시장과 권 시장은 두 도시 간 협력 사업인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사업(200억원) ▲조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450억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광주시 주요 건의 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353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진로직업체형센터 건립(10억원) ▲고령동물 생육시설 환경개선사업(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24억원)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7억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46억원) 등 7개 사업이다.

대구시 주요 사업으로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1035억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5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68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835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289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01억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155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윤 시장은 "앞으로 광주의 국비 예산은 대구가, 대구의 국비 예산은 광주가 각각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지역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고 도와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는 2013년 달빛동맹(달구름-빛고을)을 맺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민간 중심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대구 '예산동맹'

- ▶협력사업(2건) - 650억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200억
 조광역 연계 3D 융합 육성 450억
- ▶광주시(7건) - 483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 ▶대구시(7건) - 4083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함께 나선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 폐막...산업화 첫 성과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지난 달 15일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13일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관련기사 16면〉
 기존 디자인 비엔날레와 달리 '디자인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비엔날레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멘디니와 지역 업체

(주)인스나인이 협업한 미니맨 찻잔 세트가 12월 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1관 '광주 브랜딩'전에 전시된 협업 작품 9개를 내년까지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디자인센터로 새롭게 주관

기관이 바뀌며 진행상의 문제점도 노출돼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폐막식은 이날 오후 6시 비엔날레 전시관 신명홀에서 자문위원, 참여작가, 큐레이터, 도슨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조명을 제작할 선정업체와 국제 조명디자인 공모전 우수작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해광주 운암동지역주택조합이마트

광주를 빛낼 마지막 아파트

광주 북구 최고의 주거가치를 선보이다

광주 북구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 운암동 진아리채

11월 13일 GRAND OPEN

전세대 4-Bay 혁신실제

총 578세대
 66㎡(구 27㎡) 387세대 / 80㎡(구 38㎡) 191세대

062.376.0921

신명·이해광주 운암동지역주택조합 | 신명·이해 (주)리채
 신명·이해 (주)리채 | 신명·이해 (주)리채
 신명·이해 (주)리채 | 신명·이해 (주)리채

HIGH-CLASS VIEW
 HIGH-CLASS LIVING
 HIGH-CLASS EDU

진아리채
 신명·이해 (주)리채

광주에서 가장 빛나는 마지막 프리미엄 아파트 - 운암동 진아리채

SPEED WAY | 동림IC, 서광주IC를 통해 주변 신도시까지 바로 이어지는 직장까지 빠른 교통망
 SLOW LIFE | 단지 바로 뒤 근린공원 및 운암산 공원, 중외공원 등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환경
 SPECIAL PLAN | 남향 위주의 중층형 평면 구성 및 단지 내 친환경 텃밭 등 명품 특화실제
 SMART CHOICE |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한 모질가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578 가용세대

062.376.0921

신명·이해광주 운암동지역주택조합 | 신명·이해 (주)리채
 신명·이해 (주)리채 | 신명·이해 (주)리채
 신명·이해 (주)리채 | 신명·이해 (주)리채